

# 4월결단! 초반부터 치고 나간다

## 프로야구 개막 D-3

## 8개구단 전력분석 SK 와이번스

### ●목표, strong complex

SK는 목표가 우승이 아니면 안 되는 팀이다. 사방에서 모두 우승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환경, 이런 시선이 SK에는 달레마다. SK의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 역사를 아는 바깥에서는 '예전만 못한 SK'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기나와 캠프부터 SK 김성근 감독이 반복한 비관론은 '엄살'이 아닌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SK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시리즈를 조준하는 팀이다. 4년 동안 한국시리즈를 뛰었던 최고의 커리어를 갖춘 선수들이 대부분 있다. 위기에서 강하다. 훈련장에서 나오는 정신력이 없다면 SK는 '강'이 아니라 '중'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SK는 시범경기 최하위를 했다. 타 팀은 SK라는 이름이 주는 중압감에서 조금은 벗어난 상태에서 시즌에 들어간다.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가 지난 4년보다 불안한 위기상황이지만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SK는 수성에 돌입한다.

### ●마운드, 불펜은 건재하나 선발에 달렸다

누가 뭐래도 김광현이다. 김광현이 살아야 송은범도 살고, SK 전체 선발진이 살아난다. 단 김광현은 두 번 다승왕을 한 특급 투수여도 완성형은 아니다. 기록이 있다. 만약 김광현이 흔들리면 송은범과 용병까지 흔들린다. 아무리 SK 전력이 예전만 못하더라도 김광현만 끌어주면 여전히 우승 후보다. 글로버~매그레인 두 용병 선발 외에 제5선발 자리는 고효준과 전병두 등이 스웬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두 투수 공히 물러코스터적인 면은 있지만 '돌려막기'로 커버가 가능하다. 1~4선발이 제 기능을 해주면 5선발은 분위기로 이길 수 있다. 마무리는 일단 정대현이 유력하나 대체할 선수가 많다. 6회 이후 던질 투

시범경기 최하위지만 선수들 이기는 법 알아 불펜·수비 최강...독주체제 4월 승률에 달려

수는 많기에 오히려 김광현~송은범 원투펀치 역할이 컸다. SK는 한국시리즈도 불펜으로 이겼다. 좌우 밸런스를 떠나서 불펜에서 정우람~이승호(20번)~전병두~고효준 왼쪽 넷에 잠수함 정대현까지, 이 5명 중 누구나 컨디션이 좋으면 2이닝도 던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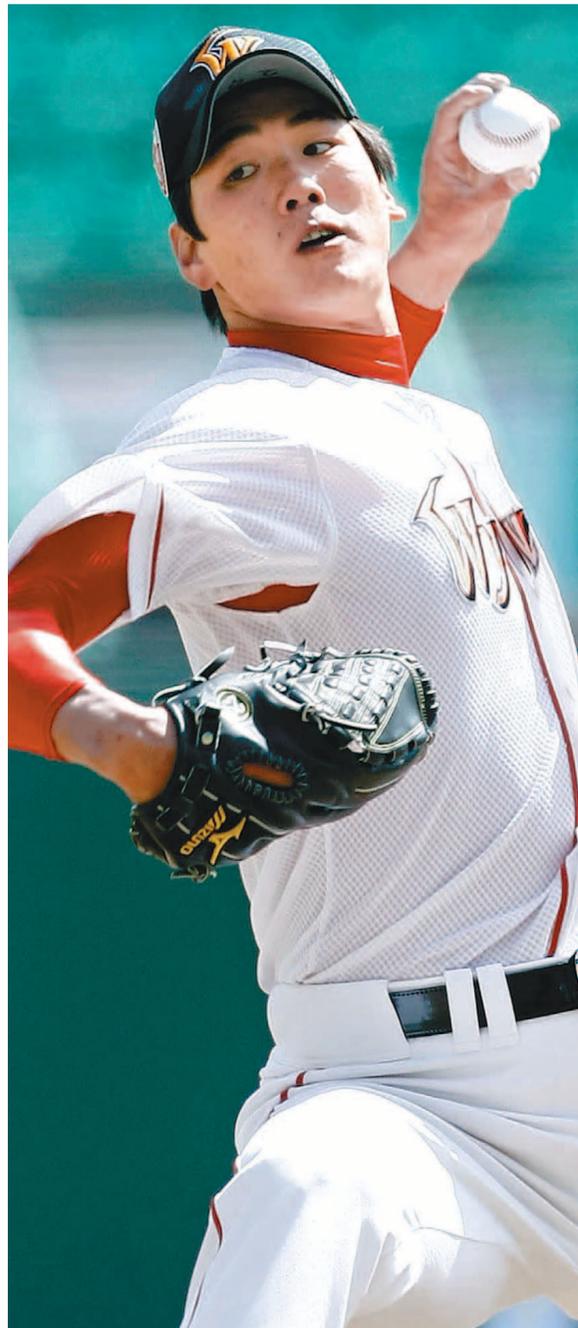
### ●아수진, 어디가도 빠지지 않는다

SK는 수비가 빈틈없기로 소문난 팀이다. 그 명성은 올해도 흠집이 없을 듯하다. 다만 박재상이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따라와야 수비는 변동한다. 내야는 유격수에 박진만이 새로 들어왔는데 의욕을 갖고 할 것이다. 공격력은 김재현이 은퇴한 공백이 있다. 여기에 박재상까지 컨디션 난조로 빠지면 왼손타자가 박정권 하나 밖에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SK의 기동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 포수도 박정권이 늦게 출발하겠지만 정상호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포수다.

### ●체크포인트, 4월의 질주 가능할까?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의 여파가 없을 수 없다. 베스트 멤버들이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을 느낄 때도 됐다. 박진만이 들어왔다고 하나 백업멤버들이 약해졌다. 나주환 이재원 모창민이 군입대 했고, 박재상은 어깨 수술을 받았다. 무엇보다 새 용병 선발 매그레인은 과거 카도쿠라나 레이번급의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광현과 송은범이 기본은 해주겠지만 전체적으로 선발이 약해진 느낌이다. 여전히 SK는 강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올해 휘청거릴 여지가 여기저기 보인다. 김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라는 현실도 변수다. 박정권이 조기에 못 들어와도 정상호만 받쳐주면 가장 우려를 받는 포수 쪽은 건널 수 있다.

SK 선수들은 이겨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단 김 감독 부임 이래 4년간 4월에, 7월에 가까운 승률을 올렸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이후 5월에 5할로 승승장구하다 6월에 스피트를 해서 페넌트레이스를 끝내는 흐름을 띠었다. 과연 SK가 올해도 그런 스타트를 할 수 있을까? SK는 페넌트레이스에 독주체제로 치고 나가는 팀이다. 초반 뜻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의외로 SK가 중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회의론이 들리는 것도 그래서다.



SK에서 김광현은 언제나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올시즌은 절대적 핵심 전력이라는 평가다. 김광현의 성적에 SK의 희망이 엇갈릴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스포츠동아DB



## 엔씨소프트 9구단 창단 승인

구단주 총회서 롯데만 유일한 반대

엔씨소프트가 프로야구 창단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제9구단 창단에 대해 구단주 총회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승인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22일 각 구단 사장단이 모인 이사회에서 엔씨소프트의 제9구단 가입을 승인하고 구단주총회에 상정했다.

구단주 총회의 승인은 KBO 정관 제6조 '회원가입'과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6표)과 재적회원 3분의 2(6표)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했다. 이사회와 동일하게 유일한 반대 1표는 롯데였다.

엔씨소프트의 연고지는 경남 창원시이며 가입금은 50억원, 예치금은 100억원이다. 앞으로 5년 이내에 2만 5000석 이상 규모의 신축 야구장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억원의 예치금은 KBO에 귀속된다.

프로야구 제9구단이 된 엔씨소프트는 3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창단 기자회견을 연다.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프로야구 창단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직접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김 대표는 유영구 KBO 총재에게 가입승인서를 직접 전달받고 박완수 창원시장과 함께 연고구단 구단주와 연고지 시장 자격으로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후 총 1시간으로 계획된 구단주 기자회견에서 창단 세부계획과 새 구단의 목표 등을 직접 설명한다.

### SK 전력분석

●투수진  
선발: 김광현-글로버-송은범-매그레인-전병두  
불펜: 정우람-이승호(37번)-고효준-김태훈-엄정욱-이영욱  
마무리: 정대현-이승호(20번)

●in & out  
in 투수: 매그레인  
내야수: 박진만  
투수: 카도쿠라 포수: 이재원  
out 내야수: 나주환-모창민  
외야수: 김재현



- 개막전 예상 라인업
- 1 정근우
  - 2 좌 박재상
  - 3 2 박정권
  - 4 지 이호준
  - 5 3 최정
  - 6 우 김재현
  - 7 중 김광현
  - 8 포 정상호
  - 9 유 박진만

# 파워텐 자판기 무점포 · 소자본 창업자 모집

## 자판기 광고수입+음료판매로 매출이 두배

불황앞에 당당히 맞설수 있는 2011년 빅히트 멀티미디어 자판기 사업으로 성공창업!

파워텐 자판기 사업의 성공포인트

- 본사가 설치장소를 섭외, 영입이 필요없는 사업
- 투자비용 저렴하고 리스크 없는 안심창업
- 직장인투잡 · 주부부업으로 안정맞춤 사업
- 인건비 부담이 없는 1인(人) 최적화 사업

파워텐 자판기 사업의 특징

-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링크 파워텐자판기는 전국 25,000여 개의 스크린골프장(매출상위10%업소에중점설치), 학원가, 헬스클럽, 스포츠용품점에 흡인율 개념으로 설치한다. 자판기 상단부에 설치된 영상모니터(12.1")로 스포츠용품점,음식점광고, 부동산광고, 자판기광고를 방송하는 신개념 자판기다. 음료판매수익과 광고 수익으로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셈이다.
- 안전성-검증된 사업  
소자본 창업의 꽃 자판기 사업은 투자대비 최고의 매출을 자랑한다
- 유호성-고객이 인정  
마서본 분들이 먼저찾는 효능으로 사업성 검증
- 기술성-멀티미디어 접목  
미디어 영상광고 대행으로 대박 창업

“돈이 되는 자판기 사업”

- 냉장기능이 있어 여름철에도 불티나게 팔린다
- 병, 캔 제품으로 구성되어 매출의 극대화
- NDDS물류시스템 구축의 선진형 물류시스템
- 24시간 내내 방송되는 광고로 수익 높은 사업
- 학생부터 직장인 폭 넓은 소비층으로 높은 매출

매일 매일 영업하고 판매하는 일은 이제 그만! 단순 관리만 해도 연금처럼 꿈같은 수익이!

(주)파워텐 F&D 문의 전화 02-418-3535

www.mpmp.kr

설치장소: 스크린골프장, 인도어연습장, 골프용품점,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센터, 대형마트, 학원 등

편집 | 민정기 기자 min365@donga.com 트위터 @min365